

한국경제

# 후회 없는 임플란트, 치과병원 선택을 위한 체크 포인트 무엇?

기사입력 2012-05-14 10:44

---



[김지일 기자] 최근 의료관련 기사 중 가장 눈에 많이 띄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임플란트'이다. 그곳은 바로 임플란트 가격 논쟁 때문이었다. 임플란트의 시술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대두되자 일부 치과병원에서 먼저 가격할인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가격 할인을 시작한 일부 병원

과 일반 병원과의 가격에는 약 15%에서 35%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나 가격논쟁 이후 최근에는 일반 치과병원에서도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임플란트 시술가격을 99만원까지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임플란트의 치료가격에는 병원별로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 시술 가격이 아니다. 수술 후유증 없이 안전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을 원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원할 때 병원 선택의 기준이 되는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1. 풍부한 시술경험과 의료기술을 갖고 있는가?

임플란트는 환자별로 체질에 맞는 제품으로 가장 적합한 시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풍부한 시술경험이 있고 의료기술이 뛰어난 치과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해 보이는 임플란트지만 의외로 임플란트 시술은 복잡한 시술이라고 한다. 치아 잇몸뼈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금속의 기둥을 심은 다음에 안전하게 고정되면 그 위에 보철을 올리는 수술이다. 때문에 잘못 시술하면 인공치아가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안전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시술경험이 많아 믿을 수 있는 임플란트 전문의에게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

### 2. 치과병원으로 신뢰받고 있으며 안전성이 있는가?

임플란트는 시술후에도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술 후 1년 동안에는 3개월마다 한번 그리고 이후에는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정도의 꾸준한 관리가 뒤따라야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가격만 보고 치과병원을 선택했는데 병원이 없어진다거나 의사선생님이 바뀌게 되면 의외의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 3. 생체친화성 임플란트 재료를 사용하는가?

임플란트는 생체 친화성이 좋고 치조골과의 결합이 잘되는 재료를 선택하여 한다. 생체친화성이 좋은 임플란트의 재료들로는 티타늄, 지르코늄, 니오비움, HA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강도나 뼈와의 결합능력 등을 고려할 때 티타늄 임플란트가 가장 안정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다.

### 4. 최신 의료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는가?

간단해 보이는 임플란트 시술이지만 안전하고 후유증 없는 시술을 위해서는 고도의 의료기술과 충분한 의료기기가 필요하다. 즉 최소한도로 절개하고 통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최소 부위만 절개하여 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물방울 레이저' 시술의 경우 출혈과 통증을 줄이고 안정성 높은 시술을 도울 뿐 아니라 부작용을 방지 한다.

구체적인 시술부위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D입체 CT 촬영'을 하게 되면 기존의 2차원적인 치과 X선이나 디지털 파노라마 X레이보다 3천배 이상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는 "임플란트 치료의 목적은 손실되거나 상실 된 치아에 형태적인 심미성, 저작의 간편함, 정확한 발음, 전체적인 구강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병원을 찾을 때에는 이 같은 사항들이 완벽하게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느냐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김 원장은 또 "임플란트는 시술 후에도 사용하는 동안은 계속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임플란트 시술 가격이 평준화된 만큼 가격보다는 안전한 시술, 만족스러운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한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m

- ▶ **"환절기 실종사건!" 이제는 섬머룩을 준비할 때**
- ▶ **[여수엑스포 개장] 93일 대장정 "최적의 방문 시기는?"**
- ▶ **"봄 재킷이 아까워" 급 더워진 요즘, 필요한건 뭐?**
- ▶ **어벤져스 무력화, 바지 벗기니 힘 못쓰는 헐크 "부끄럽구나?"**
- ▶ **[스타일 FLY] '훈남, 훈녀'로 만들어 주는 야구장 패션**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689788>

---